

# 禮記의 服飾文化 ( I )

## — 曲禮를 중심으로 —

漢陽大學校 衣類學科  
教授 金 鎮 玖

目 次	
I. 序 論	IV. 曲禮의 服飾文化
II. 禮記에 나타나는 禮의 本質	V. 要約 및 結論
III. 禮記와 服飾	ABSTRACT

### I. 序 論

中國 古代의 經典들은 悠久한 歲月을 걸쳐서 中國人의 思想과 生活의 基本이 되어 왔고 中國文化의 特徵은 바로 그러한 것들에서 結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中國人에게 至大한 影響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그 周邊 民族들에게도 많은 影響을 미쳐 왔다. 그 中에서도 特히 禮記는 그들의 모든 生活指針과 行動規範을 明示하고 있는 것이었으므로 身分地位와 階級을 超越하여 모든 中國人에게 適用되는 重要한 經典이었다.

바로 그 禮記에서 服飾에 關한 記錄을 相當히 發見할 수 있다. 禮記를 通하여 古代中國人의 服飾文化를 考究하여 보는것은 意義가 있다고 生覺하여 本稿의 論題로 택하였다.

禮記라는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禮記는 뜻 그대로 禮에 關한 記錄이다. 따라서 禮記에 나타나는 服飾은 全部 古代中國人의 禮와 關聯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禮記에 나타나는 모든 服飾現象은 禮라는 文化要素안에 두어 禮的 服飾 또는 禮와 服飾으로 體系化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體系는 禮記에 나타나는 모든 服飾現象의 分析後에 可能하다.

그러나 禮記는 篇마다 그 特徵이 있어 篇名에 따라서 어떤 篇에는 雜多한 服飾現象이 나타나는가 하면 또 어떤 篇에는 한 種類의 衣服에 對해서만

集中的으로 나타나는 등 매우 複雜하고 多様하며 廣範圍한 服飾文化 現象을 發見할 수 있다. 禮記의 이러한 特性上 이 制限된 紙面에서 禮的 服飾文化 現象을 分析하고 體系化 시키기란 大端히 어렵다. 이러한 體系는 禮記의 여러가지 服飾文化 現象을 細細히 考究한 後에라야 세울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筆者는 먼저 論文體制의 構成을 爲한 便宜上 服飾에 關한 記錄이 大體로 많은 篇名을 中心으로 禮記의 服飾을 連續的으로 分析하려 하며 그러한 結果를 土台로 禮記에 나타나는 服飾文化 現象의 體系化는 後續研究가 될 것이다.

따라서 本論文의 副題에서 보듯 本稿의 範圍는 禮記의 曲禮에 나타나는 中國의 服飾文化를 규명하여 보려고 하는데 있다.

### II. 禮記에 나타나는 禮의 本質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사람에게 禮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禽獸와 사람이 다른것은 바로 사람은 道義的 行動規範을 가지고 있다는데 있다. 사람이 늘어나고 人類의 生活이 복잡해지게 되므로 人間生活에는 道義的 規範이 必要하게 되었다. 即 人間과 人間사이의 원만하고 調和된 生活을 영위하기 爲하여 禮를 만들었다.

禮라는 것은 사람의 지나친 感情을 억제하고 不足한 感情이 一定한 規範에 到達하게 하기 爲하

여 있다. 卽 人間의 마음을 極端에 達하지 않도록 調整하는 것을 禮라고 한다.”

禮라는 것은 하늘에 根本을 두었으며 땅과 鬼神과 喪祭, 射御, 冠昏, 朝聘에 까지 미친다. 禮라는 것은 治者에게는 政治를 바로 잡는 根本이 되며 治國의 重要한 手段이 되고 人間을 神에 接近시키고 或은 制度나 規則이 우러나게 하며 仁의 道德을 세우는 것이 된다. 禮는 또한 人間을 教化하는 教育의 手段이 되며 이것으로 人間의 稟性을 開發陶冶하려는 것이다. 禮란 規範이므로 完全하여야 한다.” 禮는 여러 사람의 紀綱이다.” 禮란 사람의 本心으로 되돌아가서 古代의 慣例를 알고 事物의 起源을 잊지 않기 爲한 學習·教養이다.” 禮라는 것은 미리 배워서 알고있지 않으면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고 무슨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自己의 敬意가 相對方에게 通하지 않으며 信賴를 받지 못한다. 卽 禮는 사람과 사람간의 또는 사람과 神을 연결하기 위한 여러 행위의 根本인 것이다.”

禮記에 나타나는 禮의 對象은 人間의 生活을 營爲하기 爲하여 그의 周圍에 있는 環境 그 自體全部였다고 할 수 있을만큼 그 對象과 範圍는 多樣하고 넓다. 人間의 禮의 對象은 卽 天地自然 節期, 方位와 같은 自然的인 것, 神, 祖靈, 鬼神과 같은 超自然的인 것들과 人間과 人間의 關係이다. 人間이 天地自然과 神과 좋은 關係를 가지고자 노력하는 것, 또 人間과 人間과의 關係에서 좋은 關係를 유지하려는 것이 禮의 根本目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Ⅲ. 禮記와 服飾

服飾은 形態가 있으며, 可視的이고 人間의 基本生活과 가장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위의 여러가지 禮의 對象과 좋은 關係를 유지하기 爲하여 그것을 形으로 表現할 수 있는 手段과 方法으로 利用 되어왔다. 禮記의 禮的 服飾 體系 또는 服飾規範은 人間이 宇宙의 自然法則에 順應하고 그 모든것을 創造하고 또 運行하여 攝理하는 天地

- 1) 檀弓下
- 2) 禮器
- 3) 禮器
- 4) 禮器
- 5) 禮器

自然과 또 하늘과 땅의 모든 神에 對한 至極한 敬畏心을 가지고 精誠을 다하는 마음의 眞實한 標識로서 定하여졌고 行하여졌다. 그렇게 하므로서 古代 中國人은 하늘과 땅 그 外의 神으로 부터 도움과 保護를 받아 나라와 萬民이 平和를 누리고 잘 될 것이라고 믿었다. 또한 人間과 人間과의 關係에서 그들은 때로는 同一化하고 때로는 區別하면서 社會秩序를 維持하고 調和와 均衡을 維持하기 爲한 手段으로서 服飾規範은 禮的 服飾 體系 또는 個人의 些少한 日常生活面에서 부터 國家的인 次元의 服飾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細細한 服飾의 禮까지 規定하였고 體系化 시켰던 것이다. 그러한 服飾規範은 古代 中國人의 衣生活 全般에 걸쳐 至大한 影響을 미쳤으며 數千年동안 中國人은 勿論 周邊民族들의 衣生活에도 많은 影響을 끼쳐왔다.

禮記의 많은 部分은 服飾의 禮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古代 中國人에게 있어서 服飾은 그들의 生活全般에 걸쳐서 大端히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意味한다. 服飾은 禮의 形式과 體系를 強化하고 人間과 天地自然, 神, 人間과 人間과의 關係를 원만하고 和睦하게하며 人間을 教育하고 人間답게 만들기 爲한 道德的 規範으로서의 禮의 目的과 機能을 實踐하고 돕기 爲한 手段으로 使用되었다. 禮的 服飾의 形式과 制度의 成立은 人間과 宇宙萬物, 人間과 人間과의 關係에서 人間의 位置를 定하여 人間의 心理的 起伏의 調整과 社會化의 道具로서 使用되었고, 또한 社會秩序 維持와 社會組織內에서 身分과 地位, 階級과 品階의 標識手段으로 統治者에게는 統治手段으로 使用되었다.

### Ⅳ. 曲禮의 服飾文化

曲禮란 委曲의 禮儀 卽 禮의 細則이란 뜻이다. 周나라의 盛時에 禮制가 完備되어 있었으나 時代가 어지러워 짐에 따라 禮制는 泥滅되었다.

戰國時代에 이르러 儒者가 다시 그 보고 들은 바를 雜記하여 後世에 남긴것이 曲禮이다. 曲禮라는 題目이 意味하듯 曲禮에는 여러가지 禮儀範節이 詳細히 記錄되어 있고 服飾의 禮에 關한 記錄도

相當히 發見되는데 그것들을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 1. 父母의 生存與否와 服飾

아들된 者의 服飾은 父母의 生存與否에 따라서 決定되었다. 卽 남의 아들된자는 부모가 생존하였으면 갓과 옷을 純素하게 하지 않으며 孤子로서 아버지의 뒤를 잇는 자는 갓과 옷을 純采로 하지 않는다.<sup>6)</sup> 그리고 아버지를 여윈 아들로써 비록 喪期는 지났다 할지라도 갓과 옷을 完全한 채색으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를 여윈 슬픔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은 아버지의 뒤를 계승하는 아들에게 限한 것이고 여러 아들들에게는 강요하지 않는다. 禮가 승중하는 아들과를 구별하기 爲한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 맏아들은 喪期가 지나도 아버지를 여윈 슬픔을 더 표시하기 위하여 完全한 채색의 갓과 옷을 입을 수 없게 하였고 그것은 또한 맏아들과 次男들을 區別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 2. 童子의 服飾

童子의 衣服과 行動規範이 定하여져 있었다. 卽 童子는 갓옷과 치마를 입지 못하도록 하였다. <sup>7)</sup> 갓옷과 치마는 어른의 衣服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보면 아이와 어른을 區別하기 爲하여 服飾을 使用한 것을 알 수 있다.

童子의 몸가짐과 어른을 만났을때의 몸 姿勢에 對해서는 다음과 같이 禮를 定하고 있다.

서는 것은 반드시 方向을 바르게 하며 머리를 기울게 하여 들지 않는다. 손윗사람이 손을 잡으면 두 손으로 그 사람의 한손을 받들듯이 잡는다. 또 손윗사람이 童子의 뒤에서 몸을 굽혀 말을 건다든가 또는 동자의 옆으로 다가와서 머리를 기울이고 말을 걸어 온다든가 했을 때는 동자는 입을 손으로

가리고 대답해야 한다.<sup>8)</sup>

### 3. 旅行中の 禮와 服飾

旅行中 남의 집에서 숙박할 때, 남이 집에 들어갈 때, 문을 여닫을 때, 앉을 때 등의 禮儀를 아주 詳細히 言及하고 있다.

여행중 남의 집에서 숙박할 때에는 내집에서 하던 습관대로 무엇인가를 주인에게 굳이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마루에 올라가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안에서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높여서 말해야 하며 문 밖에 두 사람의 신이 놓여 있을 때에는 말소리가 들리면 들어가고 말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문 안으로 들어설 때에는 반드시 아래를 내려다보아야 하며, 문 안으로 들어서면 양손을 문 빗장을 잡을 때처럼 다소 높이 拱手한다. 또 실내를 휘둘러 보아서도 안된다. 그리고 방문이 열려 있으면 자기가 들어간 후에도 열어두고 닫혀 있었으면 닫는다. 또한 자기를 뒤따라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문을 완전히 닫지 말아야 한다. 남의 신을 밟지 말아야 하며, 남의 좌석을 밟지 말아야 한다. 안 쪽으로 들어갈 때에는 옷자락을 쳐들고 실내 구석을 따라 빠른 걸음으로 가서 착석하고 應對를 조심성있게 해야 한다.<sup>9)</sup>

禮儀를 바로 지켜 올바른 行動을 해야 한다는 위의 記錄들은 大端히 合理的이고 또한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이 지켜오고 있는 行動規範들이 많다.

### 4. 어른을 모시고 있을 때의 禮와 服飾

어른을 모시고 있을때의 行動과 態度, 服飾 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장막과 주렴 밖에서는 빠른 걸음으로 걸지 않으며, 마루 위에서 빠른 걸음으로 걸지 않으며, 玉을 들고는 빠른 걸음으로 걸지 않으며, 마루 위에서는 발자취를 서로 붙이고, 마루 아래에서는 발자취가

6) 曲禮 上, 爲人之者 父母存 冠衣不純素 孤子當室 冠衣不純采  
純素...순수한 흰빛

純采...深衣의 깃에 채색비단으로 꾸민 것, 순수한 흰빛은 喪服을 意味하기 때문이다.

7) 童子不衣裘裳...이는 어린이에게 너무 따뜻한 가죽옷을 입히는 것은 어린이 身體發育에 좋지 않으며 아래위로 나뉘어진 옷을 입히는 것은 어린이 활동에 좋지 않으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다.

8) 曲禮 上

9) 曲禮 上, 將適舍 求母國 將上堂 聲必場 戶外 有二履 言聞則入 言不聞則不入 將入戶 視必下 入戶奉扇 視瞻母回 戶開亦闔 戶闔的闔. 有後入者 闔而勿遂. 毋踐履 毋踏席. 掘衣趨隅. 必慎唯諾

서로 떨어지게 걷는다. 방안에서는 팔을 벌리고 빨리 걷지 않는다.<sup>10)</sup>

어른을 위하여 어른의 자리 앞을 소제하는 예절은 반드시 비를 쓰레받기 위에 엎어가지고 두손으로 들고 간다. 먼지를 쓸 때에는 소매로 가리고 뒤로 물러가면서 쓸어나가, 먼지가 어른에게 가지 않도록 하고 쓰레받기로써 자신을 향하여 쓸어담는다.<sup>11)</sup>

자리를 받들기를 다리처럼 높게 하고 저울대처럼 평형하게 한다. 앉을 자리를 펼 때에는 어느 쪽을 향하게 할까를 묻고, 누울 자리를 마련할 때에는 서쪽을 상좌로 하고 동향이나 서향일 때에는 남쪽을 상좌로 한다. 만일 상대방에 음식 대접이나 하려고 초청한 손님이 아닐 경우엔 자리를 펼 대 자리와 자리 사이에 一丈 정도의 간격을 둔다. 주인이 꿇어 앉아서 자리를 바로 잡으면 객이 꿇어 앉아서 손으로 자리를 잡아 중지시키며 사양한다. 객이 포개서 갈아놓은 자리를 걸으려고 하면 주인이 굳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양하며 객이 자리에 앉은 다음 주인이 먼저 객에게 인사말을 하기 전에 객이 먼저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에는 부끄러워 하는 얼굴로 당황해하는 태도를 하지 말 것이며 두 손으로 바지 자락의 끝이 땅에서 한자 쯤 뜨게 치켜들어야 한다. 옷자락이 덜러이는 일이 없어야 하며, 발을 미끄러지지 않도록 가만히 움직여야 한다.<sup>12)</sup>

君子를 모시고 앉았을때에 君子가 하품을 하거나 기지개를 켜며 곁에 놓인 지팡이나 신발을 손을 대거나 해가 저무는 것을 보곤 하거든 그를 모시고 앉은 사람은 자리에서 물러갈 의사를 말한다.<sup>13)</sup>

이것은 모시고 있는 웃어른이 피로해 하는 기색을 나타낼 때는 알아서 물러나고 남의 일에 참견하려고 하지 말아야 하며 衣冠을 흐리는 行動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禮이기 때문이다.

벽에 귀를 대고 남의 비밀을 엿들으려 하지 말아야 하며 남에게 대답할 때에는 높은 소리를 내어서는 안된다. 결눈으로 흘겨보지 말아야 하며 몸가짐과 동작을 게으르고 해이하게 하지 말아야 하며 길을 걸을 때 거만한 태도를 말아야 한다. 섰을 때에는 몸을 한쪽 다리에만 의지하여 기울어지게 서지 말아야 하고, 앉을 때에는 두 다리를 쪽 뺀고 앉지 말아야 하며 잠잘 때에는 엎드려 눕지 말아야 하고 머리털은 거두어 싸매어 늘어드리지 말아야 하며, 갓을 벗지 말아야 하고, 피로하더라도 웃웃의 소매를 걷어 어깨를 드러내는 일이 없어야 하며, 더워도 바지를 걷어 올리지 말아야 한다.<sup>14)</sup>

어른을 모시고 앉을 때에는 신을 신고 마루에 오르지 말아야 하며 신을 벗을 때에는 감히 섬돌 위에 바로 놓아두지 못한다. 신을 신을 때에는 꿇어 앉아서 신을 들고 섬돌 곁으로 물러나서 신는다. 어른의 면전에서 신을 신을 때에는 꿇어 앉아서 신을 옮겨다가 엎드려서 신는다.<sup>15)</sup>

어른을 모시고 있을 때의 신발을 신고 벗는 法을 가르친다.

## 5. 男女의 禮와 服飾

남자와 여자가 섞여 앉지 않으며, 衣架을 같이 하지 않으며, 수건과 빗을 함께 쓰지 않으며, 친히 주고 받지 않는다. 嫂叔間에 서로 통문하지 않으며, 제모로 하여금 賤服을 빨래하게 하지 않는다.

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 時代에는 男女의 구별이 엄격하여 한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로 물건을 주고 받지도 못하게 하였으며 거처하는 곳도 달랐으므로 男女가 일용품을 共用하는 일도 용인되지 않는 規범을 가지고 있었다.

10) 曲禮 上, 帷薄之外 不趨 堂上 不趨 執玉 不趨 堂上 接武 堂下 布武 室中 不翔.

11) 曲禮 上, 凡爲長者羹之禮 必加帶於箕上 以袂 拘而退 其麗不及長者 以箕 自鄉 而扱之.

12) 曲禮 上, 奉度如橋衡 請度何鄉 請衽何趾 席 南鄉北鄉 以西方爲上 東鄉西鄉 以南方爲上 苦非飲食之客 則布席 席問 函丈. 主人 跪 正席 客 跪 撫席而辭 客 徹重席 主人 固辭 客 踐席 主人 乃坐 主人 不問 客 不先舉 將即席 容母跪 兩手 跪衣 去齊尺 衣母撥 足母蹶

13) 曲禮 上, 侍坐於君子, 君子欠伸, 撰杖履 視日蚤莫, 侍坐請出矣. 君子問更端, 則起而待. 侍坐於君子, 苦有告者 日少問, 願有復也, 則左右屏而侍.

14) 曲禮 上, 母則聽 母噉應 母淫視 母怠荒 遊母倨 立母跛 坐母箕 寢母伏 斂髮母髻 冠母免. 勞母袒. 暑母袒 裳.

15) 曲禮 上, 侍坐於長者. 屨不上於堂. 解屨 不敢當階. 就屨 靸而舉之, 屏於側. 鄉長者而屨. 跪而遷屨. 俯而納屨.

## 6. 男女의 冠禮許婚에 따르는 禮와 服飾

女子가 시집 가는 것을 허락한 뒤에는 목걸이(纓)를 걸게 한다. 여기에서 보면 女子가 纓을 목에 걸었다는 것은 요즘 말로하면 約婚하였다는 標識였던 것이다. 이미 女兒의 결혼을 허락한 뒤에는 큰 일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집안의 남자는 그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고모나 자매나 딸이 이미 시집갔다가 돌아왔으면 형제가 한자리에 앉지 않으며, 같은 그릇에서 먹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자리에 같이 앉지 않는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중매하는 이가 오고가고 하는 일이 없으면 서로 이름을 알지 아니하며, 예물을 받지 아니하며 사귀지 않으며 친근하게 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혼인하는 날짜를 써서 임금에게 보고하고 재계하여 귀신에 告由하며,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鄉黨과 동료와 벗들을 불러 잔치를 연다. 그것은 부부유별의 예를 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내를 맞이할 때에는 同姓을 취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첩을 살 때에 그의 姓을 알지 못하면 점을 치는 것이다.<sup>16)</sup>

남자와 여자는 長을 달리한다. 남자가 二十세가 되면 冠禮를 행하고 字를 부른다. 아버지 앞에서는 아들은 이름을 일컫고, 임금의 앞에서는 신하는 이름을 일컫는다. 여자가 許婚한 뒤에는 비녀를 지르고 자를 부른다.<sup>17)</sup>

男子가 二十세가 되면 冠禮를 행하고 鬚을 쓰고 女子도 許嫁한 뒤에는 男子가 成人이 되었다는 표시로 鬚을 쓰는 것처럼 女子도 비녀를 꽂는다는 뜻인데 女子에게 出嫁를 허락하는 나이는 男子처럼 定年이 없고 十五세 以上이었다.

## 7. 父母가 病들었을 때의 아들 의 禮와 服飾

父母가 病들었을 때의 成人男女가 지켜야 할 禮와

용모는 다음과 같다.

부모가 병들면 아들은 근심하여 성인의 남자는 머리를 빗지 않으며, 다닐 때에 나는 듯 걸지 않으며, 바르지 않은 말을 하지 않으며, 잇몸이 드러나도록 크게 웃지 않으며, 성내어도 남을 소리쳐 꾸짖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 부모의 병이 나오면 도로 예전과 같이 한다.<sup>18)</sup>

근심이 있는 자는 자리에 앉아도 옆을 향해서 앉고 喪中에 있는 자는 특히 자리를 홀로 차지한다.<sup>19)</sup>

## 8. 服飾 또는 그와 關係있는 것 들을 바칠 때의 禮

갑옷을 바치는 자는(가벼운) 투구(冑)를 바친다(작아서 들기 쉬운 것을 바치어 큰 것을 표시한다). 지팡이를 바치는 자는 아래를 잡고 올린다(지팡이는 끝이 더럽기 때문이다). 포로로 잡아온 노비를 바치는 자는 그들의 오른편 소매를 잡는다<sup>20)</sup>(그들의 異心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안석과 지팡이를 올리는 자는 먼지를 털어버린다. 말이나 양을 바치는 자는 오른편 손으로 물고, 개를 바치는 자는 왼손으로 물며, 새(禽)를 바치는 자는 새의 머리를 왼쪽으로 하여 올린다. 새끼양과 기러기를 장식하는 두 손으로 움켜 받고 활이나 칼을 받는 자는 옷소매를 대고 받들어 받으며, 옥슬 잔으로 마신 자는 잔에 남은 찌꺼기를 뿌리지 않는다.<sup>21)</sup>

## 9. 巨下가 임금에게 使者를 보낼 때의 禮와 服飾

만약 신하가 임금에게 使者를 보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朝服차림을 하고 使者에게 명령하며

16) 曲禮 上, 女子許嫁 纓 非有大故 不入其門 姑姊妹 女子子 已嫁而反 兄弟弗與同席而坐 弗與同器而食 父子不同席 男女非有行媒 不相知名 非受幣 不交不親 故 日月以告君 齊戒以告鬼神 爲酒食以召鄉黨僚友 以厚其別也 取妻 不取同姓 故 買妾 不知其姓 則卜之

纓...五色실로 만든 끈. 옛날에는 女子가 出嫁를 허락하면 纓을 목에 걸었다. 즉 목걸이.

17) 曲禮 上, 男女異長 男女二十 冠而字 父前子名 君前臣名 女子許嫁 癸而字

癸而字...계(癸)는 비녀를 지른다는 말이므로 남자의 관례와 같은 것이다. 여자는 許嫁한 경우와 二十세가 된 때에 비녀를 지른 뒤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字를 부른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여자도 字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18) 曲禮 上, 父母有疾 冠者 不櫛 行不翔 言不情 琴瑟不御 食肉不至 變味 飲酒不 至 變貌 笑不至矧 怒不至詈 疾止復故.

19) 曲禮 上, 有憂者 側席而坐, 有喪者 專席而坐.

20) 曲禮 上, 獻甲者 執冑 獻杖者 執末 獻民虜者 操右袂

使者가 돌아오면 주인은 반드시 마루에 내려가서 명령을 받아야 한다.<sup>21)</sup> 이는 신하가 임금에게 지켜야 할 예절을 말하고 있다.

### 10. 居喪의 禮와 服飾

거상하는 예절은 몸이 헐고 수척한 정도와 뼈가 드러날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되고, 視力과 청력이 쇠잔해서는 안되며, 階階로 오르내리지 않으며, 나가고 들어갈 때에 문의 한가운데를 통과하지 않는다. 거상하는 예절은 喪主의 머리에 부스럼이 있으면 머리를 감으며, 몸에 종기가 있으면 몸을 씻으며, 병이 있으면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지만 병이 그치면 다시 처음과 같이 술을 마시지도 않고 고기도 먹지 않는다. 喪을 견디어내지 못하는 것은 곧 자손에게 자애하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에 견주게 되는 것이다. 五十세가 되면 몸을 극도로 훼손하지 않으며, 六十세가 되면 몸을 훼손하지 않으며, 七十세가 되면 다만 몸에 衰麻服을 입고 있을 뿐,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으며 집안에서 거처한다.<sup>22)</sup>

禮에는 節度가 있는것인데 禮를 지키려다 禮의 節度를 넘으면 오히려 禮를 해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상중에 있는 사람이 지나치게 애통하여서 건강을 해치고 자신의 性命을 상실하게 되면 도리어, 돌아가신 부모에게 不孝의 죄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禮를 지킨다고 지나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11. 軍服의 着用과 禮

갑옷과 투구의 차림을 하였을 때에는 犯할 수 없는 위엄의 빛이 있어야 한다.<sup>23)</sup>고 定하고 있는데 軍服차림은 그것을 입는 目的自體가 威容을 보이는데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입는 衣服에 따라 거기에 맞는 態度를 취하라는 것이다.

### 12. 乘車의 禮와 服飾

臣下가 임금의 수레를 탈때의 禮儀와 갖추어야 할 衣服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路馬를 試乘할 때에는 반드시 朝服차림을 해야하고 채찍을 가지며 감히 正綬를 주지 못하며, 왼편에 탈 때에는 반드시 式한다. 路馬를 걸릴 때에는 반드시 길 한가운데로 해야하며, 발로 路馬의 馬草를 차면 誅責이 있고 노마의 나이(齒)를 세어도 誅責이 있다. 路馬는 임금이 타는 말이기 때문에 大夫가 路馬를 보면 수레위에서 머리를 숙여 경의를 표해야 한다.<sup>24)</sup>

### 13. 各階級과 地位에 따라 物件을 받들거나 잡을때의 禮의 服飾

物件을 받드는 者가 取하여야 할 姿勢를 細細하게 規定하고 있다. 天子, 國君, 大夫, 仕 등의 그릇을 드리기 위하여 잡을 때에는 帶는 階級과 地位를 定하는 基準이 되고 있다. 또한 이때에 深衣의 드리

21) 曲禮 上, 進凡杖者 拂之 效馬效羊者 右牽之 效犬者 左牽之 執禽者 左首 飾羔雁者 以纁受珠玉者 以摑受弓劍者 以袂 飲玉爵者 弗揮

22) 曲禮 上, 若使人 於君所, 則必朝服而命之 使者 反 則必

23) 曲禮 上, 居喪之禮 毀瘠 不形 視聽 不衰 斤降 不由階 出入 不當門隧 居喪之禮 頭有創則沐 身有瘍則浴 有疾則飲酒食肉 疾止 復初 不勝喪 乃 比於不慈不孝 五十 不致毀 六十 不毀 七十 唯衰麻在身 飲酒食肉 處於內

24) 曲禮 上, 介冑 則有不可範之色

25) 乘路馬 必朝服 載鞭策 不敢授綬 左 必式 步路馬 必中道 以足蹴路馬 芻有誅 齒路馬有誅

乘路馬...이것은 儀式연습을 할때에 신하가 임금의 수레를 타는것을 말한것이다.

不敢授綬...임금이 수레에 오를 때에는 어자가 正綬를 임금께 주는 법이다. 그러나 이제 의식을 연습하기 위해 신하가 수레의 왼쪽 즉 임금의 자리에 타고 있으므로 감히 어자가 그에게 정수를 주지 못한다는 뜻이다.

左必式...의식의 연습을 위해 신하가 임금의 자리인 수레 왼쪽에 자리하기는 하였으나 황송해서 반드시 수레앞의 가로대나무를 잡고 머리숙여 경의를 표한다는 뜻이다.

步路馬 必中道...노마의 調習을 위하여 말을 걸릴때에는 반드시 길 한가운데로 걸게한다는 뜻이다.

以足蹴路馬 芻有誅...誅는 罰 즉 誅責이란 뜻이다. 발로 노마의 마초를 차면 誅策이 있다. 임금의 말에게 먹이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齒路馬有誅...말의 나이를 알기위해서 노마의 이를 세어보는 행위에는 벌(罰)이 있다. 그것은 임금의 물건을 업신여기는 행동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는 方法은 主君과 달라야 하는것이 나타났다. 卽 이러한 禮를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무릇 물건을 받드는 자는 가슴에 닿게 하고 물건을 드는 자는 深衣의 띠에 닿게 한다. 천자의 그릇을 잡을 때에는 가슴보다 높이 들어 평형하게 하며, 國君의 그릇을 가질 때에는 가슴과 평행하게 하고 대부의 그릇을 가질 때에는 띠 아래로 내리며, 士의 그릇을 가질 때에는 가슴보다 아래로 내리며 士의 그릇을 가질 때에는 띠 아래로 더욱 더 내려서 가진다. 무릇 主君의 그릇을 잡을 때에는 가벼운 것을 잡고도 조심하여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하며, 주군의 그릇을 잡을 때에는 폐백과 圭구슬과 璧구슬을 잡으면 왼손으로 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아래를 잡으며 가는데 발을 들지 않고 수레의 바퀴가 끊임없이 이어지듯 발뒤꿈치를 끌며 간다. 설 때에는 경쇠(磬) 모양으로 몸을 구부정하게 굽히어 패옥(佩玉)을 드리운다. 군주의 패옥이 몸에 의지했으면 신하의 패옥은 드리워져야 하고 군주의 패옥이 드리워졌으면 신하의 패옥은 땅에 닿게 하여야 한다. 옥을 잡을 때에는 玉을 담기 위하여 밑에 까는 板의 꾸미개가 있는 것은 잡는 자의 석의(袿衣)를 드러내며, 꾸미개가 없는 것은 그 옷으로 袿衣를 덮어야 한다.<sup>26)</sup>

#### 14. 君子가 外國에 居할 時의 服飾의 禮

君子가 禮를 行하는 일은 그 故國을 변경하려고

하지 않는다. 제사의 예절이나 居喪의 服制나 哭泣의 위치 같은 것을 모두 그 故國의 옛 풍속대로 한다.

卿大夫의 地位에 있던 사람이 外國에 移住하여 살 경우 이미 三代가 지났을지라도 故國의 禮法·風俗을 지킬것을 말하고 있다. 다만 本人이 外國에서 고귀한 벼슬 자리에 오르게 된 때에 限하여 그 나라의 法에 따르라고 말하고 있다.<sup>27)</sup>

#### 15. 公門에 들어갈때의 禮와 服飾

귀갑·서죽·안석·지팡이·자리·일산 등을 가지거나 상의·하의가 모두 흰 것(상복)이거나 葛布의 홉옷 차림으로 임금의 문에 들어가지 않으며 거친 짚신과 深衣 앞자락을 띠에 걸어 꽂은 매무새와 喪冠 차림으로 임금의 문에 들어가지 않으며 送死物을 기록하는 方板과 衰服과 凶事의 기구 등은 미리 보고하여 허락을 받은 후가 아니면 임금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며 公事는 신하 사이에서 사사로이 논의하지 않는다.<sup>28)</sup>

이는 신하된 자로서 임금의 앞에서 지켜야 할 도리와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예절을 말하고 문서 부책의 먼지를 떨며 문서 부책을 정리하거나 귀갑과 서죽을 거꾸러뜨리거나 뒤엎거나 하여 整齊하느라고 부산하게 하는 것은 그 일의 담당관원이 평소에 직무를 태만히 한 까닭이므로 誅責이 있다는 것이다. 귀갑과 서죽을 公門에 들어오는 것은 길흉

26) 曲禮 上, 凡奉者 當心 提者 當帶. 執天子之器則 上衡 國君則平衡 大夫則綬之 士則提之 凡執主器 執輕如不克 執主器 操幣圭璧 則尙左手 行不舉足 車輪曳踵 立則磬折垂佩 主佩倚 則身佩垂 主佩垂 則身佩委 執玉 其有藉者 則褻 爲藉者則襲.

27) 曲禮 上, 君子行禮 不求變俗 祭祀之禮 居喪之服 哭泣之位 皆如其國之故 謹脩其法 而審行之.

去國三世 爵祿 有列於朝 出入 有詔於國 若兄弟 宗族 猶存 則反告於宗後 去國三世 爵祿 無列於朝 出入 無詔於國 唯興之日 從新國之法.

28) 龜筮几杖席蓋 重素 不入公門 苟行扱衽 厭冠 不入公門 書方喪凶器 不以告 不入公門

龜筮...시초점에 쓰이는 산대(산가지)와 거북점에 쓰이는 귀갑(龜甲)을 뒤엎으며 정돈하기에 부산한 것.

几杖席蓋...레장은 늙은이를 우대하는것. 席은 앉고 눕는데 쓰이는 것. 蓋는 일산으로 햇볕이나 비를 가지는 것이다. 즉 안석과 지팡이와 자리와 일산을 말하고 있다.

重素...흰빛이 겹쳤다는 뜻이므로, 上衣와 하의의 빛깔이 희다는 뜻. 흰옷은 상복이므로 吉服이 아니다. 衫緇綌...衫은 홉옷이고 緇綌은 葛布이므로 갈포로 지은 홉옷이라는 뜻.

扱衽...扱은 挿과 같으므로 꽂는다는 뜻이고, 衽은 옷깃 즉 옷자락이므로 深衣의 앞자락을 띠에 꽂은 매무새.

書方...送死의 물건을 列記하는 方板을 말한다.

衰...衰馬服이므로 喪服을 말한다.

凶器...凶事に 쓰는 기물이므로, 棺槨·牆窆·明器 등의 기물을 말한다.

을 물어 미리 서죽을 公門에 들여오는 것은 길흉을 물어 미리 謀計하는 혐의가 있으므로 하지 말라는 것이고 凡杖은 늙고 벼슬이 높은 자를 우대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君門 안에 가지고 가는 것은 신하가 스스로 높은 체 하는 것이 되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안석과 지팡이와 자리 및 일산은 모두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므로 신하된 자가 자신을 위해 감히 軍門안으로 가져가지 못하며 속이 흰히 비치는 갈포 옷은 서늘하지만 軍門에서는 그런 차림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喪事에 관계되는 기물은 흉한 것이므로 軍門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 16. 宗廟祭器 祭服을 만들때의 禮와 祭服의 중요성

田地나 봉록이 없는 자는 제기를 만들지 않으며 전지나 봉록이 있는 자는 먼저 祭服을 만든다(그런 연후에 제기를 마련한다). 군자는 비록 가난하더라도 제기를 팔지 않으며, 주거를 짓기 위하여 분묘의 나무를 베지 않는다.<sup>29)</sup>

器物을 만들때에 우선적으로 祭祀에 관계되는 것을 먼저 마련하여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여기에서 보면 祭禮는 古代 中國人에게 가장 重要的 行事中의 하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 17. 大夫나 士가 벼슬을 내어 놓고 祖國을 떠날 때의 禮와 服飾

大夫나 士로서 임금에게 國政을 바로 하도록 三諫하여도 임금이 그것을 듣지 않을때 벼슬을 내어 놓고 나라를 떠날때의 禮와 服飾은 다음과 같다.

대부나 士가 조국을 떠날 때에는 국경을 넘어가

면 壇位를 만들고 본국을 향해 哭을 하고 흰 上衣와 흰 下衣를 입으며 흰 갓을 쓰고 中衣의 채색으로 선 두른 것을 떼어버리며 흰 冢신을 신고 수레의 손잡이를 흰 개가죽으로 덮으며 갈기를 깎지 않은 말이 끌도록 한다. 또 자신의 손톱 발톱을 깎지 않으며 수염도 깎지 않는다. 그리고 제사를 핑계삼아 성찬을 먹지 않으며, 남에게 「자신은 비록 국외로 추방 되었기는 하나 사실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으며 부인을 침실에 모시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기를 석달 동안 한 뒤에 도로 吉服차림으로 돌아간다.<sup>30)</sup>

위에서 보면 大夫나 士로서 三諫하여도 임금이 듣지 않아 벼슬을 내어 놓고서 나라를 떠날 때 喪服을 입었다. 이는 臣下로서 임금이 없음은 子息으로서 아버지가 없는 것과 같기때문에 그 슬퍼하는 마음이 喪主와 같아서 喪禮와 같이 喪主의 衣服을 입고서 三個月 후에야 吉服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 18. 佩玉의 使用法

임금이 별다른 事故가 없으면 몸에서 玉을 떼어 놓지 않으며 大夫가 別無事故이면 縣架樂을 걸어 치우지 않으며 士가 無事故이면 거문고나 비파를 걸어치우지 아니한다.<sup>31)</sup>

禮樂이 對等하게 重要的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身分이 上下에 따라서 差等을 두고 있다. 玉은 임금이 事故가 있을 때를 除外하고는 恒常着用하고 있었던 것임을 나타낸다.

### 19. 年齡 富力의 質問에 答하는 禮의 手段으로서의 服飾

曲禮의 服飾에서 흥미로운 것 中의 하나는 服飾이

29) 無田祿者 不設祭器 有田祿者 先爲祭服 君子雖貧 不碑祭器. 雖寒, 不衣祭服. 爲宮室 不斬於丘木.

30) 大夫士去國 意爲壇位 鄉國而器 素衣素裳素冠徹緣 鞶履素■ 乘髦馬 不蚤鬻 不察食 不說人以無罪 婦人不當御 三月以復服

徹緣...緣은 옷에 채색으로 선을 두른 것인데 그것을 떼어버리고 상복처럼 흰 옷차림으로 하는 것.

鞶履...신코를 꾸미지 않은 冢신.

素纈...素는 흰 개가죽. 纈은 수레덮개. 즉, 흰 개가죽으로 만든 수레 덮개.

髦馬...갈기를 깎지 않은 말.

不蚤鬻...손톱·발톱 및 수염과 머리를 깎지 않는 것. 蚤는 爪와 같으므로 손톱·발톱을 매만진다는 것이고, 鬻은 剪과 같으므로 수염과 머리털을 깎는 것.

三月後而復服...석달이 되어서야 다시 吉服으로 회복한다는 뜻.

31) 曲禮 下, 君無故 玉不去身 大夫無故 不徹緣 士無故 不徹琴瑟



나 容貌는 사람의 年齡이나 富力の 質問에 答하는 禮의 手段(方法)으로도 使用 되었다는 것이다. 卽 누가 어린 天子의 나이를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은 天子의 나이를 몇살이라고 直接 말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비로소 正式으로 의복을 입을 수 있게 되었고 그 키는 이리저리 하다고 들었습니다」<sup>32)</sup>라고 하는 것이다. 누가 大夫의 富를 묻는 사람이 있으면 「邑宰가 있고 먹을만한 賦稅의 收入이 있어서 祭器와 衣服을 남에게서 빌어오지 않을만 합니다」라고 對答하는 것이다.<sup>33)</sup>

## 20. 사람을 쳐다볼 때의 禮와 服飾

아랫 사람이 윗 사람을 相面할 때의 禮로서 쳐다볼 사람의 視線의 位置를 定하고 있는데 衣服이 그 尺度의 基準으로 使用되었다. 卽 天子를 쳐다볼 때에는 視線이 天子의 옷깃(袂)보다 위로 올라가서는 안되며, 帶보다 아래로 내려 가서는 안된다. 國君을 쳐다볼 때에는 그 얼굴의 아래에서 옷깃 위 사이를 보아야 하고 大夫를 볼 때에는 正面으로 그 얼굴을 보며 士를 볼 때에는 士의 左右 五步의 거리까지 視線을 움직여도 된다. 大體로 視線이 남의 얼굴보다 위에 있으면 거만하고 떠보다 아래에 있으면 근심이 있어 보이며 머리를 기울여 결눈으로 보면 간사한 것이다.<sup>34)</sup>

사람을 쳐다볼 때의 눈의 位置에 對한 위와같은 禮는 오늘 날에도 通用되는 것으로 그 이유가 妥當하다고 하겠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만날 때의 아랫사람의 視線의 位置에 對한 위의 記錄에 依하면 쳐다보임을 받는 사람이 地位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사람을

쳐다 볼 때의 視線의 位置에 差異를 두고 있다. 卽 높은 사람일수록 높이 쳐다 볼 수 없고 地位가 낮은 사람일수록 높이 쳐다 보아도 된다는 것이다.

## 21. 禮物를 드릴 때의 禮와 物品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날 때에 禮物를 드리는데 있어서도 身分에 따라 差異를 두었다. 天子는 鬯(鬯), 諸侯는 圭, 卿은 羔, 大夫는 雁, 士는 雉를 使用하고 庶人의 禮物는 匹木을 使用하도록 되어 있었다.<sup>35)</sup>

## V. 要約 및 結論

禮記의 曲禮에 나타나는 服飾文化를 分析한 結果의 要約과 結論은 다음과 같다.

### 1. 要約

- 1) 父母의 生存如否에 따른 服飾의 禮는 달랐다.
- 2) 童子의 衣裳은 裘裘을 입히지 않았다.
- 3) 旅行中 남의 집에서 宿泊할 때 또는 남의 집에 들어 갈 때의 禮와 服飾의 禮가 있었다.
- 4) 어른을 모시고 있을 때의 行動과 衣冠의 禮가 있었다.
- 5) 男女의 禮와 服飾의 禮가 따로 있었다.
- 6) 男女의 冠昏禮에 따르는 禮와 服飾의 禮가 各各달랐다.
- 7) 父母가 病들었을 때의 아들의 禮와 服飾의 禮가 있었다.
- 8) 服飾이나 그것과 關係있는 物品들을 바칠 때의

32) 曲禮 下, 問天子之年 對曰 聞之 始服衣 若于尺矣

始服衣...어린 아이는 童服을 입는다. 그러나 天子나 國君등은 다소 성장하면 成人과 같은 衣服을 입는다. 그 옷의 길이로 나이를 推察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33) 曲禮 下, 問大夫之富 曰有宰食力, 祭器·衣服 不假.

34) 曲禮 下, 天子視 不上於袷 不下於帶 國君綏視 大夫衡視 士視五步 凡視 上於面則族 下於帶則憂 傾則姦

袷...깃. 朝服이나 祭服의 曲領. 纒

綏視...시선이 깃위까지 올라가게 보는 것.

衡施...얼굴을 바로 보는 것.

35) 曲禮 下, 凡鬯 天子鬯 諸侯圭 卿羔 大夫鴈 士雉 庶人之鬯匹

鬯...술이름으로 天子가 神에게 바치는 禮物.

圭...命圭, 長方形으로 한쪽 끝이 장기모양으로 생긴 玉.

羔...새끼양

匹...匹木 또는 布木

禮가定해져 있었다.

- 9) 臣下가 임금에게 使者를 보낼때의 禮와 服飾의 禮가定해져 있었다.
- 10) 居喪의 禮와 服飾의 禮가定해져 있었다.
- 11) 乘車의 禮와 服飾의 禮가定해져 있었다.
- 12) 各階級과 地位에 따라 物件을 받들거나 잡을 때의 禮와 服飾의 禮가定해져 있었다.
- 13) 公門에 들어 갈때의 禮와 服飾의 禮는定해져 있었다.
- 14) 宗廟 祭器 祭服을 만들때의 禮와 祭服의 重要性이 強調되었다.
- 15) 大夫나 士가 벼슬을 내어 놓고 祖國을 떠날 때의 禮와 服飾의 禮가定해져 있었다.
- 16) 임금의 事故有無에 따라 佩玉의 使用法에 對한 禮가定하여져 있었다.
- 17) 年齡, 富力에 對한 質問에 答하는 禮의 手段으로서 服飾이 使用되었다.
- 18) 사람을 쳐다 볼때의 禮와 服飾은 關係가 있었다.
- 19) 服飾의 品目은 禮物로 使用되었고 禮物를 드릴 때의 禮와 物品에는 差異가 있었다.

## 2. 結 論

禮記의 曲禮에 나타나는 古代 中國人의 服飾文化를 分析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에 達할 수 있었다.

曲禮에는 冠 衣 衣服과 같은 一般名稱과 衣裳 裘裳 褰裳 裼 襲 衫 甲과 같은 衣服名이 나타났다. 冠은 厭冠 素冠과 같은 喪冠과 軍服에 屬하는 冑가 나타났다. 신발은 屨와 屨가 주로 나타났다. 屨에는 苞屨 鞮屨도 보였는데 이것으로 屨의 種類 材料 裝飾等を 달리한 것이 있었음이 발견되었다. 服色은 純素 純采 또는 素衣 素裳 素冠 重素 등과 같이 單純하게 나타났다. 織物도 絺 綌 등으로 簡略하게 나타났다. 衣服은 緣 徹緣 등과 같이 緣飾을 하고 하지 釵의 區別을 두면서 着用者의 社會的 身分과 環境에 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裝飾品과 所持品은 玉 珠玉 纓 佩玉 圭 笄 帶 杖 蓋 등이 나타났는데 大體로 裝飾品의 材料들로 玉을 많이 使用했다. 服飾名에는 朝服 居喪之服 衰麻服 吉服과 같은 用途別 衣服도 보였다.

위에 나타나는 服飾들을 綜合하여 簡略하게 使用者의 社會 身分別로 童子服 成人服 男服 女服 士人服 君臣服 王服 등으로 分類할 수 있고 用途別로 常服 儀禮服 旅行服 軍服 騎車服 등으로도 分類할 수 있다.

服飾의 使用面에서 볼때 古代 中國人은 그들 特有의 禮的 體系 또는 部分으로 또는 禮의 手段과 方法으로 服飾을 使用한 것으로 나타났다. 曲禮에 나타나는 服飾의 禮制는 細細하고도 多樣하며 男女 老少와 地位의 高下를 不問하여 모든 사람에게 廣範圍하게 適用되었다.

禮的 體系 또는 手段을 爲항 服飾을 使用한 方法은 多樣한 것으로 나타났다. 大體로 古代 中國人은 衣服이 種類, 材料, 色, 精粗, 紋樣, 衣服裝飾, 裝飾品 등의 使用法을 規定하므로서 服飾文化의 禮的 體系를 成就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禮의 服飾의 體系는 社會構成員의 年齡, 性別, 冠禮와 婚姻如否, 父母의 生存如否, 父母의 有疾如否, 社會的 經濟的 身分과 地位의 高下에 따라서 明示되었음이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冠婚喪祭와 같은 儀禮的 狀況에 重要性을 賦與하므으로써 禮的 服飾의 機能은 더욱 強化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旅行中 남의 집에 留할 때, 臣下가 外國에 居할때, 또는 公門에 들어 갈때와 몸치장, 容貌, 身體 各部의 動作等 細細한 生活의 部面에 이르는 禮制에 까지도 古代 中國人은 服飾을 使用하였다.

曲禮에 나타나는 服飾文化는 古代 中國人의 禮의 形式과 體系를 強化하고 人間이 天地自然, 神, 人間과 人間과의 關係를 圓滿하고 調和롭게 維持하며 人間을 人間답게 만들기 爲한 道德的 規範으로서의 禮의 目的과 機能을 實踐하고 肅기 爲한 手段으로 使用되었다.

## Abstract

### The Costume in Li chi ( I )

— Chi Li —

Prof. Jin-goo Kim  
Department of Textiles & Clothing  
Han Yang University

The drees and personal adorments of Chi Li in Li Chi was investigated in this study. The summary of this stydy is as follows :

It was found that the ancient Chinese used their dress and personal adornments as an important means of maintaining or establishing harmony with the universe, supernaturals, and

human beings.

It also appeared that dress was used to control man's psychology and to maintain social order. Differentiation of person's social status and position was made by using dress and personal adornments. Ceremonial costume such as mourning appeared considerably in Chi Li.